

지구촌 양계뉴스

●●● 미국

간, 닭 등 치매 예방에 좋아

평소 식사에서 콜린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좋고 치매 관련 뇌 변화가 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대학 연구팀이 1,400명 가량의 36~83세 연령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콜린이 기억력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콜린은 생선, 계란, 간, 닭, 우유, 콩 등의 식품 속 영양분으로, 콜린을 가장 많이 섭취한 상위 25%의 남녀는 가장 적게 섭취한 하위 25%인 사람보다 기억력 검사 결과가 더 좋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드러날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치매 퇴치의 해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신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일생 동안의 식습관이 뇌의 노화 정도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11월 24일 '미임상영양학저널'에 발표되었다.

- 브레인월드

●●● 타이슨푸즈, 분기순익 '예상하회'

미국 최대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푸즈가 예상을 밑돈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타이슨푸즈는 회계연도 4분기(7월~9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줄어든 9,700만 달러(주당 26센트)의 순익을 기록했다고 지난 11월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업계 예상 주당 순익은 32센트였다.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8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억4100만 달러의 영업 이익을 창출했던 닭고기 사업부에서 사료비 상승과 수급 불균형으로 지난분기 8,2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며 순익 감소로 이어졌다.

- 머니투데이

●●● 일본

환경성, 시대책 기금 창설

일본 환경성은 2012년도에 철새의 이동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주변조사 등의 대책을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금을 창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조사 및 바이러스검사 비용을 위한 것이며, 2012년부터 5년간 5억 엔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다.

AI는 발생규모가 해마다 다르며,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에 걸쳐 전국 16개 도부현에서 흑두루미와 땡기흰죽지 등 총 60마리가 확인되는 등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년 동기에는 발생건수가 없어 죽은 철새의 바이러스 검사건수를 비교하면 25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발생건수가 증가한 해에는 대책비용이 때에 따라서 2억 엔 이상에 달해 사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응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위기관리면에서도 문제이다.

이에 따라 환경성은 대규모로 발생할 시 긴급 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금의 총액은 5년간 5억 3,600만 엔을 상정하고, 발생지의 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분변검사나 발생루트조사 등의 긴급조사 외에도 조류 시체의 바이러스검사, 전문가 회의 개최 비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일본농업신문

●●● 캄보디아

증가하는 축산사료 수요로 투자 기대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업 내 분야에서 축산은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로 선정돼 정부 지

원 및 개발에 있어 최우선 분야로 후원받고 있다.

현재 축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사료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수요는 1년에 700,000톤 정도이지만 자국 내 생산 인프라가 취약하여 자급량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170,000톤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량 수입되고 있다. 그리하여 축산업과 양식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투자청(CDC)에 따르면, 현재 6개의 회사가 축산사료 투자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5개의 회사가 운영 중에 있다. 그 중 C.P Cambodia는 가장 큰 회사로서 2010년 기준 톤당 500달러에 전체 144,000톤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20,000톤 대비 7배가 넘는 수치이다.

주위의 태국이나 베트남을 보면, 축산사료 공장이 보통 500~600여개가 존재하며, 생산 공정도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에 반해 캄보디아는 군소업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생산량이 미비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료 수요를 인지하고 주변국과 같은 생산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 KOTRA 프놈펜무역관 자체조사